

등록금 오르고 이자 치솟고 알바 '별따기'

여름방학 대학생들 '비명'

조선대 3학년에 재학중인 하모(여·24)씨는 학자금 대출 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년에 이자만 33만원 가량을 내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이자율이 최대 8.2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만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어려운 협원이다. 또 즐아진 취업문을 뒤기 위한 취업준비로 인해 토익 학원과 각종 공모전 모임 등을 참석하면서 맞는 시 간대의 아르바이트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하씨는 "해마다 등록금은 10% 이상씩 인상되고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저리 대출인 학자금 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어 정말 걱정이다"며 "선거 때마다 각 정당들이 주장하던 등록금 인하 정책은 어디로 실종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생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등록금 인상과 학자금 대출금리의 급등, 아르바이트 자리 실종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 대출 금리(7.65%)보다 최소 0.35%포인트 이상 높아져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까 두렵다"며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고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힘든데다 맘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지난 2007년 1학기 6.59%, 2007년 2학기 6.66%, 2008년 1학기 7.6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 건수(1개월 이상 연체)는 ▲2006년 2월 3천700건 ▲2006년 8월 9천900건 ▲

2007년 2월 1만7천200건 ▲2007년 8월 2만2천300건 ▲2008년 2월 2만6천800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를 의미하는 '신용유의자' 대학생은 지난 2월 말 현재 4천171명이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네트워크' 오미덕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각 정당들이 대학 등록금과 관련 공약을 쏟아놨지만 정작 시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내년 등록금 협상 전까지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와 연대해서 등록금 관련 정책은 물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무이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4학년 강모(26)씨는 "학자금 대출이자가 4개월 밀렸는데 졸업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모 유통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운태·지병문 법정서 만날까?

姜 의원 재판에 池 전의원 증인 채택

'양숙' 두 사람 '피고인 - 증인' 공방 관심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재판에 4·9총선 당시 지역구(광주 남구)에서 '한관' 승부를 벌였던 지병문 전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지 전 의원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숙'인 두 사람의 법정에서 나란히 피고인과 증인으로서 어떤 공방을 벌일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경)는 21일로 예정됐던 강 의원에 대한 7번째 공방기일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있는 대정부 질문을 이유로 공방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다.

강 의원에 대한 공판은 지난 5월 30일 공소장 접수 이후 그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매주 한 차례씩 열린 셈이다.

지금까지 모두 10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으며, 오는 25일 열릴 공판에도 지 전 의원 등 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지 전 의원은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다.

검찰은 지 전 의원을 통해 강 의원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모씨에 대한 선거에서의 역할 등

을 집중적으로 신문, 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서씨를 불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법정에서 밝힐 계획이다.

만약 오는 25일 지 전 의원과 증인 2명이 모두 출석해 증인신문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재판부의 피의자 신문에 이어 결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초 또는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구로부인하는 데다 신문할 증인이 많고, 일부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독약 공급 부풀려 보조금 청구

역대 횡령 업자·공무원 9명 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1일 양식장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소독약품 공급업자 유모(4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소독약품 공급업자 정모(49)씨 등 다른 공급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신안·무안군 공무원 6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locally) 여부를 확인해야 할에도 소독약품 납품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인 물품 검·인수 조서나 납품된 소독약품의 양식장 살포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인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양식 어민들과 결탁, 공급량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1억1천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또 소독약품 납품량이 정확하게 공급되고, 양식장에 살포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기본들아래 편집사법부 www.hugagood.com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할부식 편집서비스 - 월평균 50,000원~60,000원대(무이자 36월 까지)

보상판매실시 온돌침대를 구입 시 현재 사용하는 침대(에드리스)를 보상판매

국내 판매 회사로 관할 및 판매처로 판매처로 드립니다.

온돌침대를 이용하고 있는 A/S와 함께 드립니다.

온돌침대를 이용하고 있는 A/S와 함께 드립니다.

축 OPEN 기념 TEL 062-961-9994

가장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침대 푸동산 문번정사

극락전 납골당 이 있습니다

현행부모와 달리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고습니까?

고객센터 010-4298-0000 00-931-4004 00-931-4005

여종생 훔친 車 사고내고 데려 협박

○...길거리에서
성녀팔 우연히 만난 40대
남자와 알고 지내
던 가출 여종생이 이 남자의 승용차
열쇠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S(14)
양은 지난 20일 밤 9시께 광주시 광산
구 송정동 송정역 인근 지하주차장에
서 무면허 상태로 B(42)씨의 승용차
를 몰고 가던 중 지하주차장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S양은 사고를
낸 뒤 B씨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니
차량을 찾아기라, 이 사실은 경찰에
알리면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에서
"B씨가 설마 신고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

○...경찰은 S양을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B씨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